



“석가산 옆 비오톱서 피톤치드 ‘뽀뽀’... 자연 맛 좀 볼래?”

아파트의 미학(美學)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2차 그랑베뉴

도보 거리에 다울초·중학교 자리잡고
여가 누릴 청룡두천 수변공원 조성 중
최고 23층, 7개 동에 총 660가구 규모

최근 찾은 경기 파주시 다울동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2차 그랑베뉴’.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경의·중앙선 운정역 1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 걸렸다.

단지 인근에는 다울초·중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청룡두천 수변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완공 시 입주민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파주시 운정3지구 A10블록에 들어선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3층, 7개동, 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별 분양 가구 수는 ▲59㎡ 172가구 ▲84㎡ 318가구 ▲104㎡ 170가구 등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풍경채’ 로고가 부각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멋스러운 외관을 뽐내고 있는 단지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한 것이 눈에 띄었다.

시공사인 제일건설은 조망과 채광, 통풍을 고려해 전 세대를 판상형 남향 위주로 배치해 넉넉한 동간 거리를 확보했다. 지상에는 보행자를 고려해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를 조성,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전 세대에 드레스룸을 비롯해 일부 세대에는 알파룸, 팬트리도 함께 제공해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갖췄다”면서 “자동차로 20분이면 파주 LCD일반산업단지, 탄현국가산업단지, 축현1·2산업단지도 접근 가능해 직주근

접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에는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2차 그랑베뉴’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석가산이 설치됐다. 바람과 폭포의 물줄기, 소나무 등이 조화를 이루는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마치 자연 속 한가운데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바로 옆에는 티하우스가 조성돼 있었다.

단지 내 곳곳에는 깔끔한 느낌의 조경과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건강정원, 담소정원 등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입주민이 테이블과 벤치가 앉아 담소와 휴식,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바쁜 일상에서 삶의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은 자연의 풍요로움과 사람들의 만남을 제공해 줄 전망이다.

단지 중앙 석가산의 폭포 ‘산수화’ 같아 티하우스 마련... 곳곳에 조경·휴게공간 미피·오두막·도서관 모티브 놀이터 조성

커뮤니티 센터에는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맘스카페, 키즈카페, 입주민카페, 실내골프장,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단지 내에는 시립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됐다. 어린이집 옆에는 정원을 모티브로 만든 ‘작은정원 놀이터’가 설치됐다.

이동 그림책 시리즈의 주인공 ‘미피’가 있는 ‘미피의 책방 놀이터’를 포함해 오두막, 도서관 등을 모티브로 만든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어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다.

단지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에 방점을 뒀다. 곤충과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집과 돌무더기 등을 만들어 ‘육생 비오톱(인간과 동식물 같은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을 완성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① 단지 내 석가산과 ② 산책로 모습. ③ 휴식 공간과 ④ 육생 비오톱, ⑤ 도서관 모티브로 만든 테마 놀이터와 ⑥ 미피의 책방 놀이터 ⑦ 단지 내 산책로와 ⑧ 휴식공간.

